

---

# 2020년 제43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10. 16. ~ 10. 2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0. 17.	시청률	0.004

### 【총 평】

길 따라 인문학 제4회는 올해 4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 116호로 지정된 전북 부안 직소폭포 일원을 소개한 '예술혼이 꽃피는 문학의 정원'편을 방송했다.

옛 선조들의 문학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북 부안 출신 생활시인이자 민족시인 신석정이 그려낸 아름답고 역사의식이 담긴 시와 그의 고택 청구원 이야기, 조선 중기 기생이자 여류시인이었던 매창의 시세계와 천민출신 시인 유희경과의 시 언어로 나눈 사랑, 허균의 사상 등을 알려주었다. 또, 아름다운 숲과 절경의 직소폭포, 봉래구곡, 채석강, 곰소항 등을 담아냄으로써 왜 변산반도가 문학의 정원이라 불려졌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특히 신석정 시인이 윤동주에게 보낸 '흑석고개로 보내는 시'는 당시 상황과 예술혼을 잘 드러냈고, 부안의 아름다운 절경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 【구성 및 내용】

예술혼이 꽃피는 문학의 정원, 전북 부안이 소개됐다. 부안삼절이라 불리우는 직소폭포, 매창, 유희경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뿐만 아니라 허균, 유형원, 신석정 시인에 이르기까지 부안의 인문학이 빼어난 영상으로 소개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전북 부안의 변산 팔경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변산 팔경 중의 하나인 전북 부안 직소폭포 일원을 웅장한 폭포와 맑은 계곡물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잘 담아냈다. 우리나라 명승 제116호인 직소폭포는 곧은 선비의 정신을 품고 있는 듯 했다. 또,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중심으로는 형성된 시와 문학, 그리고 문학적 사랑 이야기, 염전 문화가 지역 문화에 미친 인문학이야기 등이 화면 곳곳에 잘 묻어났다. 이 밖에 화산암으로 꽃핀 주상절리나 침식지형,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을 품은 산과 함께 문학 등을 살펴봄으로써 직소폭포 일원에 대한 지질학적 가치와 자연환경 보전 가치, 변산반도의 인문학적인 혼을 잘 보여주었다.

신석정 고택과 그의 작품을 그의 시풍에 담긴 의미를 소개했는데, 신석정이 꿈은 부안의 명물 중 매창과 유희경을 소개하고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에 대한 풀 스토리와 두 사람이 남긴 작품을 각각 알려주었다. 매창과 유희경의 만남과 이별까지, 또 매창의 죽음까지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어 흥미로웠고, 여기에 그리움을 주제로 한 두 사람의 시가 함께 소개가 되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매창과 유희경에 이어 부안의 3대 명물로 꼽히는 직소폭포를 둘러 지역적인 특색을 소개하고 폭포 소리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다. 이 밖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다는 우반동, 반계 유형원이 반계수록을 썼다는 반계서당, 적벽강, 수성당, 채석강, 곰소염전 등으로 이동하면서 부안의 윤치를 강조했다. 곰소염전의 풍경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염전의 전체 풍경과 소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0. 17.	시청률	0.005

### 【총 평】

<오름, 바람소리-제주>편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의 오름과 그 속에서 나오는 자연의 바람소리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제주의 특성인 바람 소리를 오름과 연관지어 다양하게 채집해 사운드멘터리의 진수를 보여준 구성이 탁월했다. 오름의 바람소리, 멀리 보이는 바닷가 파도소리, 풀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등 시각과 청각을 살려 몰입감을 이끌었다. 이 밖에 제주도 오름 여러 곳을 두루 보여주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풍물, 말 사육, 녹지와 능선을 산책하는 관광객들을 담아낸 평화로운 영상이 아름다웠다. 다랑쉬에 얹힌 4.3 사건의 슬픈 역사와 오름의 꿈과 희망을 대비시킨 구성도 인상적이었고 잃어버린 마을 다랑쉬 주민 집단 희생지에서 술잔을 올리며 예를 갖추는 모습도 진한 여운을 남겼다.

### 【구성 및 내용】

세상 모든 곡선이 모인 곳, 오목하게 패인 자리, 화산섬이 내어준 오름이다. 바다를 마주 보고 선 사람의 산, 오름의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제주의 바람을 만나보았다.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오름과 바람소리를 잘 매치시켜서 계절의 정취에 빠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4.3 사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랑쉬굴'의 애잔함과 오름이 주는 희망의 이미지를 교차시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제주 구좌읍 다랑쉬 오름, 용눈이 오름 등 368개 오름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오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기에 적절했다. 특히 '다랑쉬굴'이 상징하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억과 오름의 평화로운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뤘고, 오름의 풍경과 바람소리에는 희생됐던 사람들의 말할 수 없었던 소리까지 섞여 있다는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구좌읍의 다랑쉬 오름에는 편백나무가 줄지어 서있다. 둘레길을 지나 오르막길을 30분 간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나오는데 정상에서는 용눈이 오름과 제주 동쪽 바다가 보인다. 성산포부터 제주시까지의 제주도 해안선이 모두 내려다보인다. 종달리, 하도리 주민 11명이 집단으로 희생당한, 제주 4.3의 아픈 흔적들이 남아있는 다랑쉬굴이 있다.

용눈이 오름은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특히 많은 오름으로 100m가 되지 않는 낮은 용눈이 오름은 아름답기로는 뒤처지지 않으며 제주에서 유일하게 3개의 분화구를 가지고 있다. 자연 풍광, 그것도 '큰 규모의 오름'을 소개하는 공중샷이 많았는데 '푸르른 자연의 자태'를 잘 담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또, 애월읍의 말목장을 소개했는데, 말테우리는 제주도 방언으로 말을 직접 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목동으로 볼 수 있다. 제주에서 오름에 말 방목을 많이 시키는 것은, 평야에서는 농사를 짓고 오름은 농사를 짓기 힘들어 말이나 소를 키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0. 17.	시청률	0.008

##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91회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북한의 의도와 핵심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려주었다. 특히 열병식에 나타난 북한의 의도와 경제 실패를 인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28분간 연설에 담긴 숨은 의미는 무엇인지, 남북 관계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시간이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현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이전 열병식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싶었던 점 등을 예상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속에 포함된 핵 관련 메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이중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점을 살피고 우리의 국방현실도 살펴보았으며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제시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 최초로 심야에 열린 열병식은 동원된 군인과 민간인들이 10만 명은 될 것이라는 분석과 이번 행사를 김여정 부부장이 총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밖에 LED 전투기쇼, 행군한 군인들의 복장 등 일반 시청자가 알기 어려운 속사정을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또,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부분도 다루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콕 집어주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중에 눈물을 보였는데 이는 10년 전 권력을 잡을 당시 약속했던 경제적 부흥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덮으려는 감정정치의 일환이라는 분석과 함께 남쪽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5년 전 미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적대시했던 것과는 달리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며 대화에 대한 여지를 두었다.

또, 핵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3년전 열병식과 비교하면서 남한과 미국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지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힘든 현실을 그대로 반증해주는 연설이라는 분석도 공감 많이 되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예상도 설득력이 있었다. 열병식 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각각 입장을 표명한 부분과 한미 공동 대응도 언급되었다.

북한의 신무기 공개 장면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 관계, 우리의 국방력과 북한의 선제 공격시 대응방안에 대해 차례로 다루었다. 북한의 시급한 과제를 경제분야로 꼽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10. 17.	시청률	0.000

### 【총 평】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제9회 ‘억울한 죽음의 진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보도연맹에 가입한 옛 울산군 능소면 주민 천여 명을 연행해 집단 학살한 사건을 집중 조명해 국가권력에 의한 비극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역사적 교훈을 일깨운 기획이 돋보였다. 당시 유족 3명의 사연과 증언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고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는 탐사보도 형식의 구성이 뛰어났다. 그동안 억울한 학살과 연좌제로 인한 가족의 아픔, 한 등이 인터뷰를 통해 절절히 전달됐다. 특히 군사정부에 의해 합동묘가 사라지고 유골의 행방조차 묘연해진 상황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제2의 학살’이었다는 지적을 전달한 구성이 적절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울산보도연맹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뤄졌고 이어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공식사과에 짐을 일부 내려놓았다는 유족들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또, 위령탑이 조성되고 있다는 최근 상황이 소개된 점은 진실과 화해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 【구성 및 내용】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참혹한 죽음의 진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총살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뤘다. 사건의 개요와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진실규명, 대운산 유해 발굴, 유족들의 2차 피해 등으로 구성했다.

1949년 4월,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 1949년 12월 국민보도연맹 울산군연맹이 결성되었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870여 명의 울산지역 보도 연맹원 등이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구 방첩부대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총살된 사건을 진실 규명하였다. 진실규명 시 가장 결정적인 근거 자료는 울산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던 처형자 명부로 대다수가 보도연맹원들이었음이 밝혀졌다. 1950년 8월, 울산경찰서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을 자행했다. 이후 1960년 6월, 유족들은 울산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의 유골 발굴을 진행했고 수백구의 유해와 유품들을 발굴했다. 그리고 지금의 백양사 주차장에 5m 규모의 봉분과 추모비를 조성했지만 이어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합동묘는 파괴되고 유골들은 사라졌다. 이후 유족들은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며 살아왔다. 즉 국가권력에 의한 제2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군사정부 시절, 주위의 시선과 편견에 시달린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직권조사로 울산보도연맹사건의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고, 2007년 유족회를 다시 꾸려 위령제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 1월, 희생자 추모식이 이뤄졌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가 이뤄졌다. 울산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이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0. 18.	시청률	0.046

### 【총 평】

PD리포트 이슈 본(本) 제317회 “태양광과 원전 허위조작정보, 사실은?”은 올해 여름 최대 장마로 인해 벌어진 산사태와 이로 인해 야기된 산지 태양광 발전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를 취재했고, 기후변화와 원전 논란의 핵심 문제, 신재생에너지 활용 문제 등을 전문가와 집중점검 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시설 난개발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확인 과정을 모두 허위사실이었음을 밝혔다. 특히 제도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및 태양광 제조업체의 제조 원료 등을 통해 근거를 제시해 허위조작정보의 확대 재생산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차단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수해 피해와 함께 태양광 시설이 붕괴된 지역을 직접 방문해 그 피해를 둘러보고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한 여러 시각의 지적과 비난을 정리했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장려 운동을 되짚어 보고 정확한 의도를 전달한 뒤 앞서 언급한 사고의 정확한 이유를 따져보고 태양광 시설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독성 물질 함유에 대한 논란을 전문가의 분석으로 통해 정확한 성분을 밝혔다. 또, 태풍으로 가동이 중단된 부산의 고리 원전을 찾아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고 원전이 중단되는 원리를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올 여름 수해 가운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시설로 지목되고, 태양광이 문재인 정부들이 친환경 정책의 실시로 산지에 우후죽순 많아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이지만 태양광 발전의 허가가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전 정부에 시작된 것이 많고 전체 산사태 가운데 태양광과 연관된 것은 0.2%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또, 태양광 패널에서 독성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태양광 발전 설비에 카드롬은 전혀 쓰이지 않고 비소는 양이 너무 적다는 내용이다. 특히 직접 실험실을 방문해서 태양광 패널의 주요 성분을 밝히며 논란에 대응했고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는 비소 성분의 함유량도 정확한 수치로 접근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등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인상적이었다.

이번 태풍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을 두고 시민들의 불안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이번 원전이 가동된 시각을 정확히 따져서 분석하고 가동이 중단된 원인을 찾아서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이 드러나서 아주 인상적이었다. 또한, 새로운 기후 위기에 대응할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해 진정성이 있었다. 마무리 메시지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두고 함께 풀어나가면서 기후 위기에 대처해 나가자고 말해 공감을 높였다.

프로그램	법보다 법		
방송일자	2020. 10. 18.	시청률	0.000

### 【총 평】

‘당신도 안전할 수 없다! 급증하는 성범죄, 현명한 대처법’은 올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직장 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적 상식을 알아보았다. 특히 성범죄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성추행과 성폭행, 성희롱 등을 구별해서 설명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환기시킨 점도 의미가 있었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국민의 공분을 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이슈화되고 있고,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성범죄를 주제로 대처와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장 내 성범죄는 2014년에 비해 2018년 약 40%이상 증가하였고, 동료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같은 기간 내 57% 증가하였다. 직장 내 성범죄 상담 의뢰인에 따르면, 직장 상사의 과도한 스킨십에 화를 내기도 하며 직장 내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에 변호사는 회사의 처리만을 기다리지 말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라는 조언을 제시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한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도 비친고죄이므로 수사기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비친고죄는 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례를 통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범죄 유형과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성범죄에 관한 법정 형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N번방 사건은 현재 박사방 운영자는 구속기소 중이며 N번방 개설자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상황이다. 공범들도 검거되어 구형이 이뤄졌다. 디지털 성 착취는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련의 성 착취 과정을 모두 함께하는 것으로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디지털 상에서 이뤄지므로 잡히지 않고 추적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최근 의결되었지만 이는 권고안으로서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동성 간 성범죄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일깨워 시민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었다. ‘무엇이든 물어볼 法’에서 모든 게 거짓이었던 애인에 대한 사례를 통해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0. 18.	시청률	0.005

### 【총 평】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남해로 간 귀농 8개월 차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 같은 분식집, 남해로 왔다 아인교?!”편을 방송했다. 손님이라곤 없을 것 같은 남해 오지 바닷가에 최초의 분식집이 생겼다. 이 마을 출신의 남편은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스스로 개조하고 평소 일가견이 있던 분식집을 차렸는데 유부초밥, 해물라면, 떡볶이가 제일 인기가 많은 음식이다. 이웃들도 젊은 부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분식집 앞이 바로 부둣가라 부부는 낚시대를 던지며 휴식시간을 보내고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양떼 목장을 찾아 밤에는 아이들과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현대인들의 팍팍한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자연과 함께 무한한 행복과 여유를 즐기는 부부의 귀촌 생활을 전해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남해의 전경과 가게 소개, 그리고 귀촌의 꿈을 이루게 된 계기를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이웃에게 수국을 얻어다가 심는 과정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 오전시간의 손님맛이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낚시를 하는 등 남편과 아내의 여유로운 일상이 느껴졌다. 오후 장사와 더불어 귀가한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등 가족의 저녁 풍경이 그려졌다. 손님이 없는 날 양떼목장으로 소풍을 나간 가족의 모습과 부부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오전 영업을 끝내고 놀이터에 강아지랑 산책을 하거나 늦은 점심을 먹고 낚시를 나간다는가 하는 모습이 이어져서 그야말로 유유자적한 모습이 최대한 부각되었다. 바다를 보며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는 ‘돈 버는 재미보다 바다 앞 식사가 더 좋다’는 부부의 소신이 더 확실해지기도 했고 부러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서도 마찰이 없이 신혼처럼 웃고 즐기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과 직접 잡은 생선으로 반찬을 만들어주는 모습,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 등이 차례로 선을 보여 귀촌 생활이 아이들에게 주는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부부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귀촌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언급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공감이 되었다. 손님이 없는 날에 가족이 양떼 목장으로 소풍을 나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에서 귀촌의 가장 큰 장점이 잘 부각되었다.

한적한 어촌 마을을 풍광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저녁 무렵 방파제에서 비눗방울 놀이하는 아이, 밤에 별처럼 빛나는 분식집 모습이 압권이었다. 또, 피아노 선율이 너무나 절묘하게 바다의 풍경과 여유로운 부부의 일상과 잘 어울렸고 갈매기 소리는 바닷가 생활의 묘미를 잘 표현해주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업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10. 18.	시청률	0.013

### 【총 평】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부미용관리사’편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전망이 밝은 피부미용관리사 직업의 세계를 알리고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관련업계 대표와 취업선배가 소개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피부미용관리사’의 직업적 특성과 향후 고용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

‘취업비법’에서 전한 세 가지 비법 모두 내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좋았는데 특히 ‘전문교육을 받아라’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부가적으로 소개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

특히 지난 푸드 슈퍼바이저 모의화상면접 출연했던 남녀 지원자 2명의 취업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구직자들의 성취동기와 자신감을 부여했다.

### 【구성 및 내용】

피부미용관리사에 대해 업체 대표와 피부미용관리사 선배가 출연하여 피부미용관리사의 향후 수요, 실제 일과와 취업비법 등을 소개하고 모의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또, 취업 선배가 직장에서 하는 업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매주 치러야 하는 시험이나 피부 관리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전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국내 최초 피부미용 기업인 ‘약손명가’는 얼굴 관리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글로벌 미용기업이다. 피부관리사의 고용은 향후 10년 간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손명가의 경우 12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피부미용관리사 선배의 하루 시작은 고객관리로 시작하는데 예약내용부터 시간까지 확인을 하고 고객 맞춤형 관리를 준비한다. 손님이 방문하면 얼굴부터 피부관리가 진행되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업이다. 예약이 비는 시간에는 틈틈이 필기와 실기 공부를 하며, 더불어 후배 교육도 진행한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을 하는데 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으로 체력관리가 요구된다. 취업비법으로는 전문교육을 받아라, 분석적으로 사고하라, 대인관계 기술을 배워라를 제시했다. 전문대학의 피부미용과목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자격증을 취득해도 가능하다. 피부미용관리사는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의 피부타입, 생활습관 등을 파악하고 개개인에 적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을 1:1로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상냥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화상모의 면접에서는 피부미용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 어떤 피부미용관리사가 되고 싶은지 등을 물어보았다. 더불어 남의 말을 잘 믿는지, 믿으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면접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의외의 질문 등을 던졌다.